



##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 맞벌이 가구의 생활 실태조사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farnia@suwon.re.kr

정해진 과장  
김재이 위촉연구원  
정재진 데이터분석센터장

### 요약

#### ■ 맞벌이 가구는 자녀양육을 위해 주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 맞벌이 가구는 주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

#### ■ 맞벌이 가구의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도 평균은 49.9%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도 높아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의 미활용 이유에 대해 청년층은 직장내 분위기(46.1%)와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26.2%)이라고 응답

#### ■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은 '자녀 양육 부담'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양육 부담을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인식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과 가사 부담, 비맞벌이 가구는 남녀 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노부모 부담을 걸림돌로 인식

### 시사점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필요

- 직장 내 출산과 양육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필요
- 수원시는 공적 돌봄서비스(수원새빛형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구가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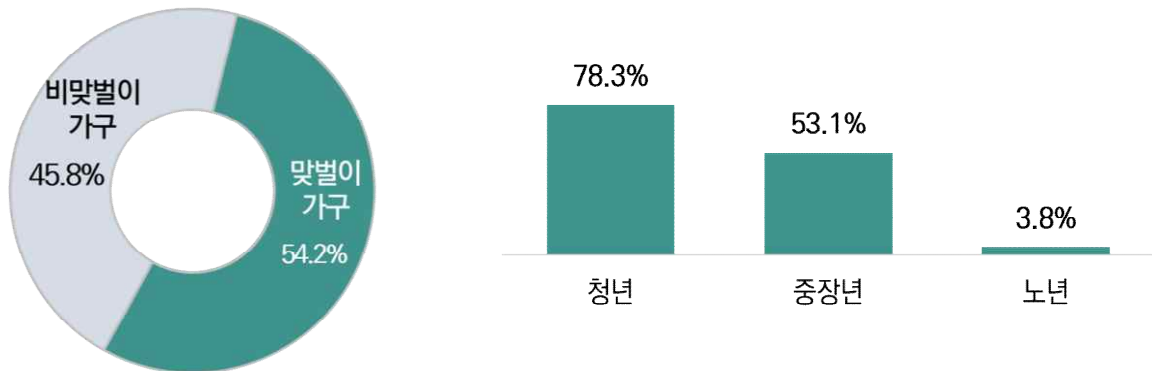
## 1 맞벌이 가구의 가구 특성과 경제활동

### □ 2가구 중 1가구는 맞벌이 가구<sup>1)</sup>, 맞벌이 기간은 3년 이상~6년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아

#### ○ 맞벌이 가구 비율은 54.2%, 비맞벌이 가구 비율은 45.8%

-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78.3%, 중장년층의 53.1%, 노년층의 3.8%가 맞벌이를 하고 있음

<맞벌이 가구 비율>



#### ○ 맞벌이 가구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맞벌이 기간은 3년 이상~6년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아

- 맞벌이 가구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40대가 38.7%로 가장 많고, 30대(31.8%), 50대(22.3%), 60대(4.5%), 20대(2.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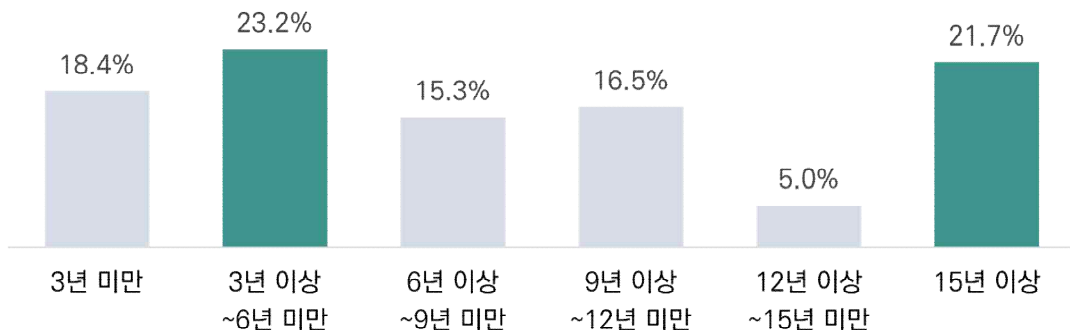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의 연령분포>

(단위: 세, %)

구분	평균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맞벌이가구	43	2.6	31.8	38.7	22.3	4.5

- 맞벌이 기간은 3년 이상~6년 미만이 23.2%로 가장 높고, 15년 이상(21.7%), 3년 미만(18.4%), 9년 이상~12년 미만(16.5%) 순

<맞벌이 기간>



1)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하며, 비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 중 어느 한쪽만 취업자이거나, 모두 취업자가 아닌 가구를 의미함

○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는 주로 임금근로자, 남성은 임금 근로자 비율 높게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임금근로자, 여성은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 근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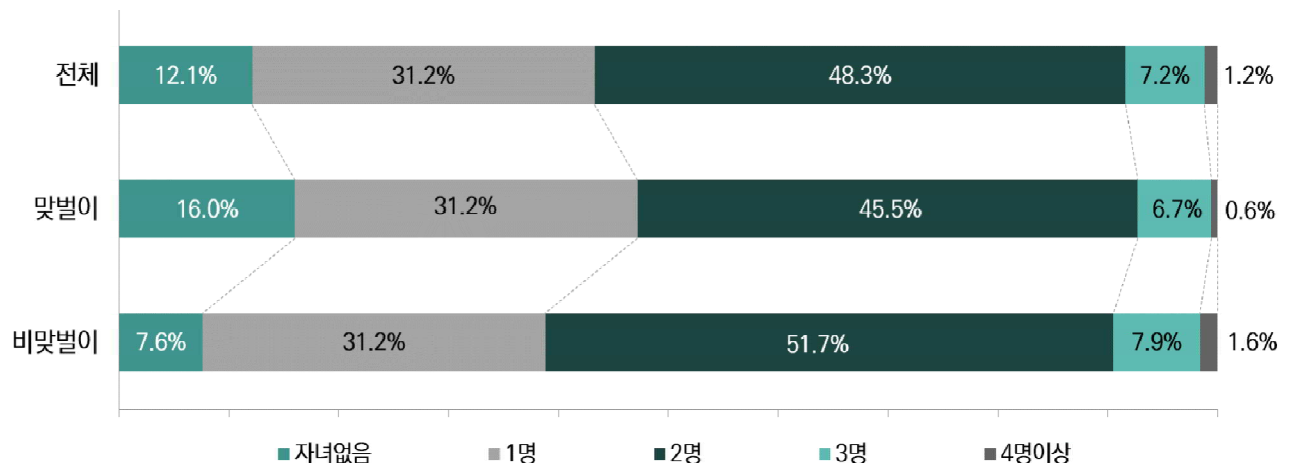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86.7	9.5	0.7	3.1
남성	91.7	5.8	0.0	2.5
여성	83.7	11.8	1.1	3.4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무자녀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출산율 흐름을 벗어나지 않음. 두 집단 모두 자녀수가 2명인 경우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1명, 자녀 없음 순
- ‘자녀없음’ 비율은 맞벌이 가구(16.0%)가 비맞벌이 가구(7.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



## 2 맞벌이 가구의 시간 활용

### □ 맞벌이 가구는 일(소득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활용,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

- 맞벌이 가구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일(소득활동)하는 시간이 8.3시간으로 가장 높고, 휴식(취침포함) 7.0시간, 가정관리 2.7시간 순
  - 남성과 여성 모두 일(소득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과 가족원 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가구의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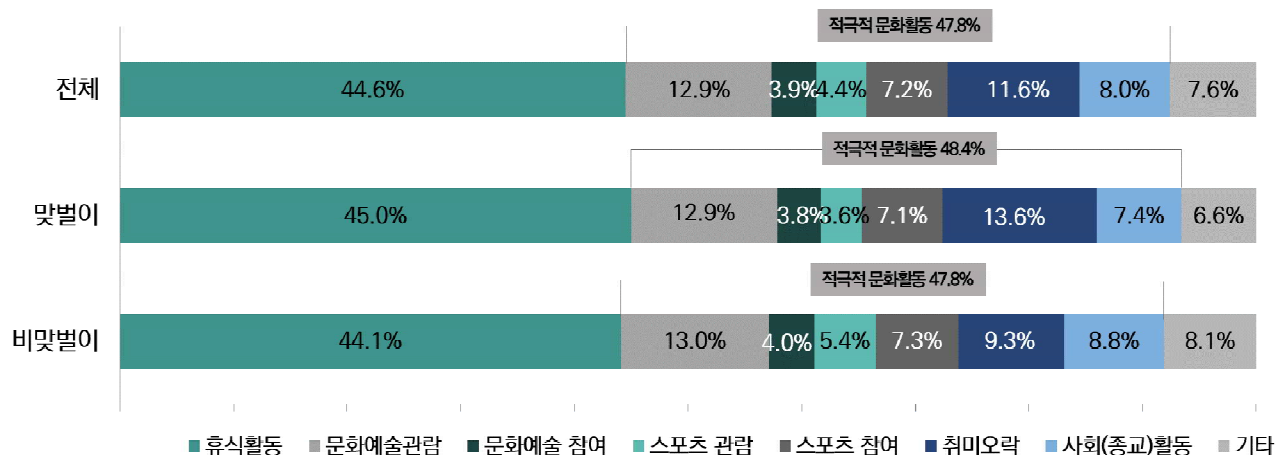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일(소득활동)	가정관리	가족·가족원 돌봄	여가/자기계발	휴식(취침포함)	기타
전체	8.3	2.7	1.9	1.3	7.0	2.8
남성	9.2	2.7	1.7	1.3	7.0	2.1
여성	7.8	2.8	2.0	1.3	7.0	3.1

### □ 맞벌이 가구는 여가시간에 주로 휴식활동(45.0%)을 하며 적극적 문화활동(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사회활동)<sup>2)</sup>비율은 48.4%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여가시간에 주로 휴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 문화 활동 중 맞벌이 가구는 취미오락, 비맞벌이 가구는 문화예술관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
  - 적극적 문화 활동 중 두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큰 활동은 취미오락이고, 차이가 가장 작은 활동은 문화예술관람

<여가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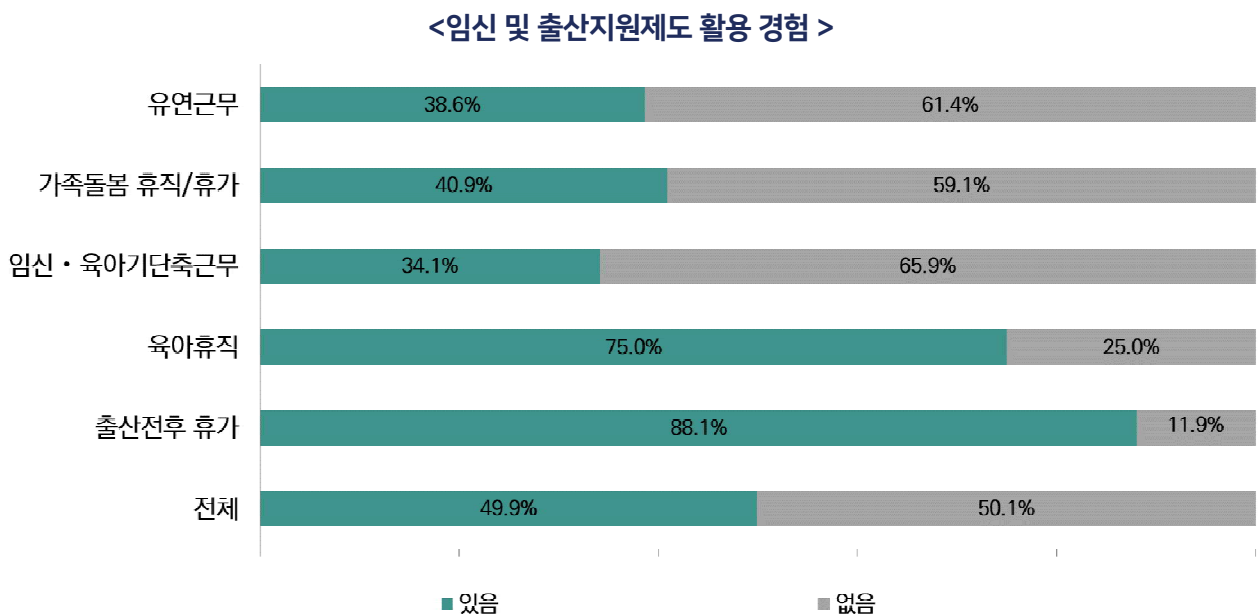
2) 적극적 문화활동: 스포츠, 문화, 종교사회활동 등 동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 / 소극적 문화활동: TV시청, 인터넷 등 정적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김고은, 2018)

### 3 맞벌이 가구의 정책활용과 수요

#### □ 맞벌이 가구 2명 중 1명은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적 있어

- 맞벌이 가구의 49.9%는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임신 및 출산지원 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활용경험이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원제도별 활용 경험을 살펴보면 출산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가 88.1%로 가장 높고 육아휴직(75.0%), 가족돌봄 휴직/휴가(40.9%), 유연근무(38.6%) 순



#### □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제도 활용도<sup>3)</sup> 높게 나타나

- 맞벌이 가구의 임신 및 출산지원 활용도는 49.9%로 비맞벌이 가구(29.9%)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남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모두에서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활용도의 차이가 27.0%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맞벌이 가구 여성의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도는 64.2%, 비맞벌이 가구 여성의 활용도는 59.2%

- 맞벌이 가구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육아휴직(66.7%)이고,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유연근무(50.0%)

- 비맞벌이 가구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63.0%)이고,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제도는 유연근무(67.9%)

3) 임신 및 출산지원 제도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

## &lt;가구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 비율&gt;

(단위: %, %p)

구분		전체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 휴직/휴가	유연근무
전체		40.2	83.2	65.3	30.3	35.8	35.0
성별	남	37.6	36.8	34.6	43.4	48.0	55.2
	여	62.4	63.2	65.4	56.6	52.0	44.8
맞벌이		49.9	88.1	75.0	34.1	40.9	38.6
성별	남	35.8	36.8	33.3	41.7	45.8	50.0
	여	64.2	63.2	66.7	58.3	54.2	50.0
비맞벌이		29.9	74.5	48.0	23.5	26.5	28.6
성별	남	40.8	37.0	38.3	47.8	53.8	67.9
	여	59.2	63.0	61.7	52.2	46.2	32.1
맞벌이와 비맞벌이의 활용도 차이		20.0	13.6	27.0	10.6	14.4	10.0

##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는 이유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sup>4)</sup>

### ○ 맞벌이 가구의 10명 중 5~6명은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제도 미시행 이외에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와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때문
- 임신·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함에 있어 직장분위기가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lt;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미활용 이유&gt;

(단위: %)

구분	제도 미시행	소득감소 우려	배우자 휴직	승진 등 불이익 우려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직장 분위기
전체	54.6	5.7	4.7	3.8	11.8	19.4
출산전후 휴가	56.0	4.4	5.2	3.4	12.3	18.7
육아휴직	51.6	5.6	5.4	4.7	13.8	18.9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55.5	6.6	3.9	4.2	9.6	20.2
가족돌봄 휴직/휴가	54.5	6.4	5.2	2.5	12.0	19.4
유연근무	55.3	5.6	3.7	4.2	11.3	19.9

### ○ 세대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의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 10명 중 5명은 직장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장년과 노년은 제도 미시행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이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 이유는 직장분위기(46.1%)였고 다음으로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26.2%)로 나타남

4) 제도 미활용 이유로 '제도 미시행'을 언급한 중장년, 노년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현재 시점이 아닌 활용한 적이 없었던 과거의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의 제도 미시행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lt;세대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미활용 이유&gt;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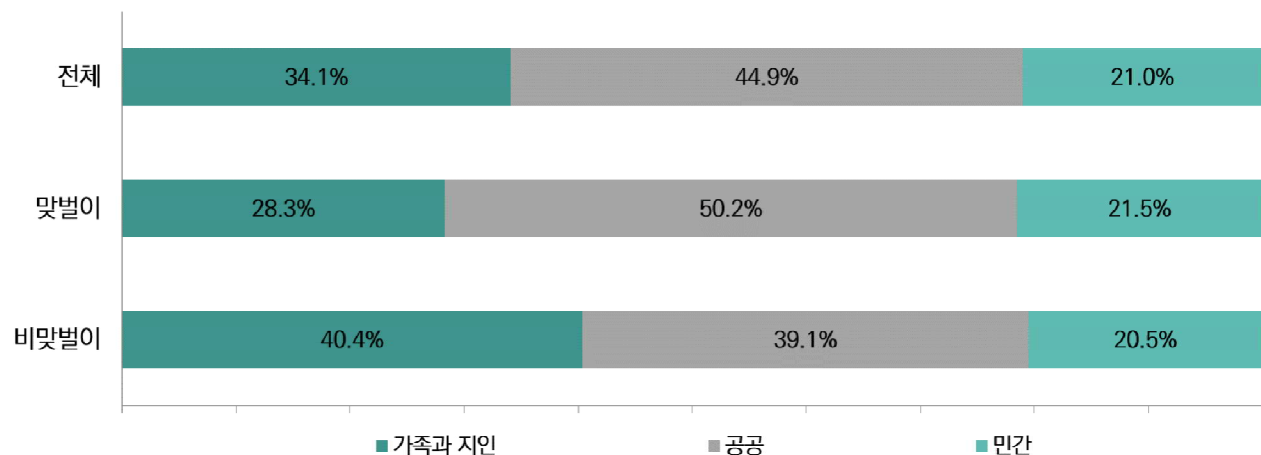
구분	제도 미시행	소득감소 우려	배우자 휴직	승진 등 불이익 우려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직장 분위기
전체	54.6	5.7	4.7	3.8	11.8	19.4
청년	15.4	7.7	3.1	1.5	26.2	46.1
중장년	54.8	5.9	5.0	4.0	11.6	18.7
노년	71.0	2.2	1.1	1.5	8.7	15.5

□ 맞벌이 가구는 공공이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sup>5)</sup>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 맞벌이 가구는 주로 공공이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비맞벌이 가구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 높게 나타남

- 민간서비스 이용 비율은 맞벌이와 비맞벌이가 유사하게 나타남

## &lt;자녀가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gt;



| 주: 가족과 지인(조부모, 친인척, 이웃, 친구, 지인), 공공(어린이집 시간연장/유치원 방과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시간제보육, 지역 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사교육 서비스, 민간 육아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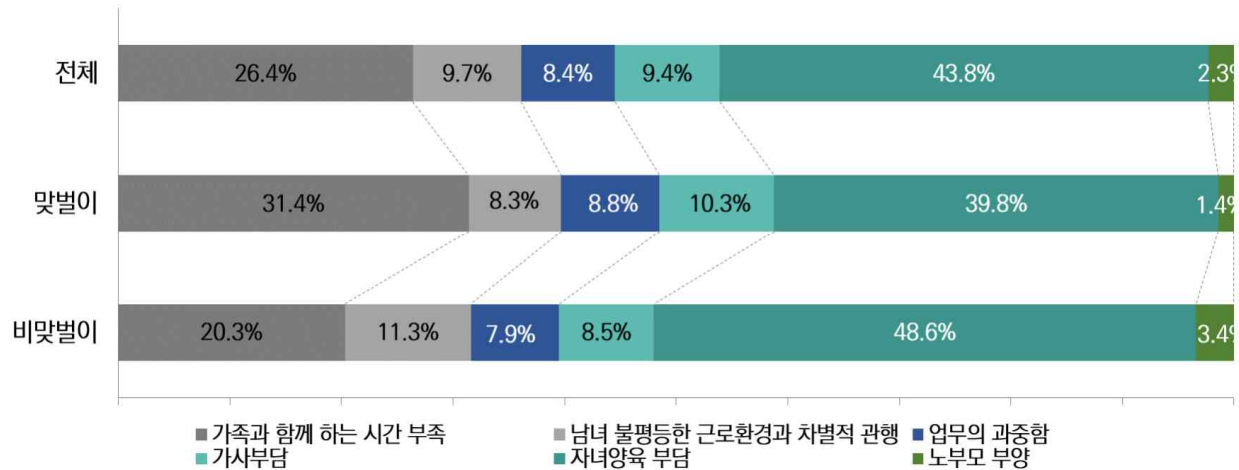
## □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양육 부담'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모두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식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과 '가사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맞벌이 가구는 '남녀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5) 육아지원서비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본적인 보육/교육 외 이용하는 서비스

###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



## 4 시사점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필요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10명 중 4~5명은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을 '자녀양육 부담'이라고 인식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과 가사부담을 느끼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남녀 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노부모 부담을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인식
  -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임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가 중요
-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서 시작
  - 청년 맞벌이 가구가 임신 및 출산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분위기와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임
  - 직장 내 출산과 양육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필요

#### ✓ SRI 시민패널조사 개요(2023년 4/4분기)

- 조사목적: 시정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 시민들의 시정현안 인식과 변화 파악
- 조사대상: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2,378명(유효설문 1,359명)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 조사시기: 2023.12.04.~2023.12.12.(9일간)
- 조사내용: (정기조사) 수원시 생활만족도 중 생활환경, 복지환경 세부사항 만족도 등 연간 모니터링 후 함의 도출 (선택조사)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생활상 실태, 맞벌이 가구 실태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